

3. 성경 예언의 초점

2012. 1. 15.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중에 평안 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예언의 초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 목사님, 이제 봉독한 말씀도 예언에 속하는 것입니까?

답: 당연하지요.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 중에 가장 긴 예언이고 모든 예언의 중심입니다. 이 말씀 이 후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설명과 해석들일뿐입니다. 이 창3:15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뱀에게 선고한 말씀인데 뱀을 심판하시며 선고하신 판결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뱀이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말은 죽을 것이라는 뜻이지요. 뱀이 죽으면 뱀에게 속아서 뱀에게 사로잡혀 있던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말씀을 하시던 당시의 사건이 아니고 구주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과 그 후에 일어날 사건이니까 정말 역사적 시간적 예언이지요. 다른 모든 사실들은 이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사실들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연구해야 합니다.

2. 창3:15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예언의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예, 이 말씀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도록 해서 사람을 죽게 한 뱀에게 심판하셔서 뱀이 여자의 후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을 죽이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는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뱀이 사단, 마귀라고 가르쳐줍니다. 계12:9에 분명히 설명했지요.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큰 용은 옛 뱀이고 사단 마귀입니다. 옛 뱀이라는 말이 에덴동산에서 사람을 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한 그 뱀을 뜻하는 말이지요. 결국 사단이 여자의 후손에게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단이 죽으면 사단에게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다 해방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했지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사님이 골로새 1:13절을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골1:13,14]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 이 말씀이 곧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강제성이 없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태어나는 사람마다 자신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는 중에 사단의 나라 국민이 됩니다.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는 사망의 나라요, 사단은 어두움의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또한 흑암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상태이지요. 사단이 세상을 주장하는 왕이니까요.

이 창3:15에는 세 가지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과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속아 사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 구주에 대한 예언인데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구주가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를 예언한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구주가 완전한 승리를 할 것을 예언한 것이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구주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것, 곧 고난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3. 지금 하시는 말씀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경위와 사람이 죄인이 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자세히 알아야 창3:15도 자세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예,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을 흑암과 사망의 나라가 되도록 했으며 이런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는 기독교인들이면 대개 어렵게나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원래 빛나는 천사였는데, 그가 교만하여 정죄되었습니다. 딤펢전3:6에 보면 사단의 정죄 내용이 교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 말씀은 교회 장로를 선택할 때에 새로 입교한 자를 선택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죄 내용이 교만인 것이 확실하지요. 마귀, 곧 사단은 원래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천사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교만했는지는 이사야 14:12~1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봉독하시겠습니까.

[사14:12~14]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렸는데,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지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등하겠다고 주장했으며,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겠다고 했으니 여간 교만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계시록 12:7~9에 있습니다.

[계12:7~9]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잃어버리고 이 땅으로 쫓겨 와서 에덴동산에서 인류의 시조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하여 사람이 사망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찬란한 영광의 천사가 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먹었는지도 성경을 자

세히 살피면 알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내용을 다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임 결과 된 일의 원인을 기어이 살피지 않아도 되겠고, 이런 결과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 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며 기능이기도 합니다.

4.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었습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지요?

답: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요. 설령 직접 질문을 하지는 않아도 마음에 그런 의혹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까닭은 성경을 읽으면 능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안에서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만유보다 크시고 만물은 창조주 안에서 그 창조된 상태를 영구히 보존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시한 말씀을 찾아보지요. 골로새1:16,17절입니다.

[골1:16,17]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만물이 그분 안에 서 있다고 가르칩니다. 만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창조된 상태를 존속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은 시9:1에도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일차적으로 우리의 거처는 광야 여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정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만, 확대해서 생각하면 모든 피조물의 거처가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골로새1:17의 내용으로 알 수 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29에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말씀하셔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도 창조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예외가 아니고, 물론 사단이 된 계명성이라고 불린 천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사야 14:12에서 계명성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헬렐인데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루치페르라고 했지요. 그것은 영어 발음으로 읽어서 루시퍼가 되었는데, 그가 천사로서 창조주 안에 있을 때 창조주의 목적에 합당하게 존속하는데, 그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성경은 계시합니다. 유다서 6절을 목사님이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유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루시페를 위시하여 그와 동조한 천사들은 다 창조주 안에서 떠난 것입니다. 결과는 존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떠나는 것은 창조주와 상관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격적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그 창조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창조를 거절하면 그는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처리될 것입니다. 그것

은 곧 창조주가 있도록 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기도 하지요. 루시퍼와 그에게 동조한 천사들이 그렇게 하여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루시퍼는 자기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땅에 와서 이 지구의 첫 인격적 피조물인 사람에게 접근하여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절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취소합니다. 그것이 사망 곧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이 유혹하여 사람을 창조주 그리스도를 떠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고후 11:3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후11:3]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게 했다고 했지요. 즉 창조주를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자기 처소를 떠난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인데,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등하겠다고 한 루시퍼의 정신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선악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기록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선악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뱀이 문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삼은 것이지 선악과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 설명이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인간의 시조가 죽어서 그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면 그것을 끝이 날 것인데 왜 그의 자손들이 태어나서 사망의 세상에서 고생하며 지내게 되었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었으면 모든 것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답: 그렇지요. 그러나 창세기를 읽으면 창조주께서 그렇게 처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을 기록한 말씀을 찾아 읽어보지요. 창1:26~28입니다.

[창1:26~28]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이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성취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한 사실을 취소할 수 없지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어쩌면 사단이 이것을 노렸을까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결하셔야 합니다. 죽기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3:15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을 대신하여 다른 한 아담이 올 것이니까 뱀 네가 그 아담과 재 대결해봐라. 그 결과를 따라 모든 일이 집행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나 결과는 네가 머리를 상하여 존재를 영원히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처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그 사실이 다른 아담에게 적용될 것이다. 결국 첫 아담 대신에 다른 아담이 그 죽음을 담당할 것이지만 그는 생명을 스스로 회복할 것이고, 너는 영원히 존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그 예언대로 마지막 아담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5:14을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에 고전 15:45을 읽지요.

[롬5: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고전15: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들은 처음 창조된 아담이 다른 아담의 표상이 되었고, 처음 창조된 아담을 첫 사람 아담이라고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다른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지요. 이 마지막 아담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뱀 곧 사단과 싸울 것이고 사단은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주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구주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상할 것이며 사단은 그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즉 사단이 죽어서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당장 그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사형선고는 되었지만 사형집행이 실시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역사가 생기고 사람 사는 사회에 온갖 잡다한 사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6. 아담 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엄청 고생하게 되었으니 불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처리하시는지요. 그냥 아담을 죽게 하고 새로 흙으로 다른 아담을 창조하면 안 되었을까요?

답: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죽고 아예 세상에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사건도 없을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과 이런 대담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창조주의 뜻인 듯합니다. 사람도 심혈을 기울여 무엇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을 없애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창조주께서도 그와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성경은 창조주께서 자기 하신 일로 즐거워하신다고 했거든요. 시 104:31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리로다.” 또한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날마다 기뻐하셨으며 사람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고 했습니다. 잠8:30,31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쉽게 그 창조를 무너뜨리시겠습니까. 회복하시지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연기시키고 일단 영

원한 생명과는 다른 육체의 생명만으로 일정기간 세상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은 이미 죽은 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이 죽은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주를 보내시고 그 구주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구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그 유명한 요3:16에 기록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사님이나 저나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영생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파도처럼 가슴에 밀리는 것을 느끼는 일이지요.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아무쪼록 애청자들의 가슴에도 이 사랑이 밀려들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네요. 기도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믿고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